

3/21(월) 요한계시록 묵상

요한계시록 12:7-1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지난 주 수요일 묵상 시간에도 언급한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중간기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 이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운명

본문 5-6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은 교회가 '천이백육십 일'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상징적인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과 더불어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7-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러한 천상에서 영적인 존재들의 모습은 구약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욥 1: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지만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내쫓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태초 이래로 계속된 영적인 존재들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고 사탄이 그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러한 승리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한편,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한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공격하고 미혹합니다(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고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영향력이 분명 큰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대로 그의 때는 얼마 남지 않은 패배한 운명입니다.

사탄의 박해

하지만, 내쫓긴 사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여자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지속적으로 박해합니다(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로 인해 지금도 우리는 전세계에서 사탄의 박해로 인해 외적으로 핍박 받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내적으로 넘어지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용의 공격으로부터 그 여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14-16절, "그 여자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서 ‘광야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생각나게 합니다(출 19: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비록 사탄의 영향력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에도 여전히 기세등등하여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남은 운명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사와 베드로의 서신에도 보면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엡 6:11-12,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벰전 5:8-9,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이러한 사탄의 존재는 중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탄의 존재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고 결코 영적으로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트럼블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T국의 김흥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